

腸内 이물제거수술 2例

趙俊行* · 김 정 남**

언제나 강아지에는 갑작스러운 병이 잘 생긴다. 특히 발육 중인 강아지들의 식욕은 무서운 것 없이 닳치는대로 입안에 넣어 삼켜버린다.

첫번째 증례는 1986년 7월 10일에 방문한 강아지의 임상보고이다. 이 경우에도 장폐쇄의 전형적인 증상대로 24시간 전부터 토하고 설사를 시작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복부는 자꾸 팽대되어 이로 인하여 호흡은 가빠지고 구토의 내용물이 차차로 누런 똥물로 변하여 특수한 냄새가 나며 복통을 나타내고 맥은 약하나 빨라 1분에 120회를 셀 수 있었으며 또 발끝이 차지는 쇼크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한 눈에 몹시 지친 허탈상태로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다. 이 강아지를 소개한 세종동물병원 김정남 원장의 진단대로 임상증상으로 봐서 전형적인 장폐쇄를 의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X선 촬영을 한 결과 사진과 같은 X선상을 볼 수 있었으며(그림 1), 복강내 십이지장 부위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내버스 토콘 1개와 오래된 지퍼 손잡이 한 개를 개복수술로써 제거하였다.

이 강아지의 종류는 요즘 애견가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요오크셔 수컷과 마루치즈 암컷 사이에서 나온 잡종으로 축주는 이 환축의 종류가 요마루라고 말하였고, 이름은 밍키이며 수컷이고 생후 8개월이라 하나 치열로 봐서는 그보다 1~2개월 어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몸무게 1.8kg, 맥박 120회, 체온 37.5°C 이었고 이곳에 왔을 때는 누운상태에서 가끔 눈을 가늘게 뜨고 있을 정도로 기진맥진하여 있었다. 축주가 외국인이라 그의 양해하에 수술서약서에 싸인을 정식으로 받고 수술준비를 끝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수술을 실시하였다.

2시 30분 카나마이신 200mg IM

2시 45분 케타민+콘베린 0.1cc IM

2시 55분 럼폰 0.1cc IM

3시 정각 첫번째 구토(약간의 거품과 위액량 점액이 나왔다).

3시 10분 정중선에 따른 복부절개

3시 20분 십이지장내에 있는 이물(토콘과 지퍼 손잡이)를 장절개로 빼냄.

3시 45분에 복부 피부봉합.

수술중 마취상태 대단히 양호함.

4시 10분 망상봉대로 수술부위를 감싸준 후 마취가 깨어 귀가 치료하도록 하였다.

7월 11일

아직 단식 중이고 어제보다 약간의 기운이 난 것을 자신의 몸을 가누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 구토나 설사, 동통은 없었으며 밤새 잘 잤다고 함.

체온 38.9°로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맥박 84회로 어제보다 많이 안정되었고 무엇이든 먹으려고 했으나 오후에 죽을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장운동은 청진되지 않았고 치료하

* 清雲動物病院 ** 세종동물병원

는데 순순히 응해와 강아지 자신이 치료의 의미를 잘 알고 순응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을 느낄 수 있었다.

7월 12일(수술후 3일째)

원기가 많이 좋아졌음. 이제는 고개를 가누고 몸체를 흔들며 잠시 섰다가도 곧 엎드렸고 한눈에 생동감이 없음을 알 수가 있다. 장운동을 탐지할 수가 있었으나 아직도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못하는 형편이었다.

체온 38.9°, 맥박 1분간 96회이었고 상처의 경과가 좋아서 이후 발사시까지 자택에서 자가 치료할 것을 지시하였다.

수술후 4일째 걸려온 전화에 의하면 밍키가 밥도 잘 먹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재롱도 잘 부려 즐겁고 아주 고마워서 궁금할까봐 우선 알린다는 것이었다.

이 전화를 받은 필자는 개복수술 후 너무 운동시키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언젠가 동네 코카스파니엘을 장폐쇄로 개복하였는데, 이 개 역시 수컷이며 그때 나이 생후 만 1년으로 개 종류나 나이로봐서 한창때임으로 수술후 며칠은 모든 조건이 좋아서 인지 회복률이 눈에 띄게 좋았으나, 불행히도 수술 후 4일만에 왔을때 보니 배가 다시 갈라져 있어서 아연실색한 적이 있었다. 그때 코카스파니엘주인 이야기로는 수술 후 잘 먹고, 잘 자고, 잘 짓고, 잘 놀기에 뛰어다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더니 이 코카스파니엘이 눈깜짝할 사이 책상 위에 뛰어 올라가서 다시 아래로 뛰어내렸는데 배가 갈라졌다는 말이고 보니... 원장으로서 답답함을 느꼈고, 그때의 갈라진 상태는 복부의 피부절개선 바로 0.5cm 떨어져 새로운 절 개선이 생겼는데 불행중 다행히 근육층인 외사복근까지는 벌어지고 내사복근 바로 아래 복횡근과 복직근 그리고 복막을 봉합한 곳은 복부가 팽대된 상태로 되어 위기 일발의 스틸을 느끼게 하였으며 복부 표면과 외사근의 봉합한 곳을 재수술하기 위해서 봉합되었던 봉합사를 다시 뽑고 피부를 좌우로 당기니 전번 수술로 절개되

었던 피부는 서로 떨어져 나가는데 그 모양은 마치 붙어있던 스킨 테이프를 다시 떼어낼 때 느낄 수 있는 접착력이 있는 작은 힘을 감지할 수는 있었으나, 수술시 절개선대로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수술후 4일째라도 봉합사에 의해 절개된 피부가 서로 붙어있을 뿐이고 만일 봉합사가 자연히 풀어지거나 개의 입이나 발장난으로 봉합사가 풀린다면 다시 재봉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코카스파니엘의 경우, 다시 재봉합을 하게 된 경우를 살펴보면, 수술후 너무나 치유력이 좋아서 개이기 때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수의사의 지시를 지키지 않은 결과이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식욕이 좋다고 너무 많은 분량의 먹이를 주어 복부의 팽대를 가져와서 복부의 피부나 근육이 이완되었으며 특히 이 개에선 피부나 외사복근이 얇아서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는 충격으로 복부의 피부가 갈라졌다고 본다.

7월 18일

실은 16일 예정하였던 발사를 사정상으로 미루어 발사(拔糸)함.

수술후 만 9일이어서 발사시기가 늦은 감이 있었고 피부를 봉합한 stαιν糸가 일부 매물되어 발사하는데 좀 고생되었다.

강아지 밍키는 완전히 회복하여 언제 수술을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수선스럽게 병원안을 뛰논다.

두번째 임상례는 1986년 7월 5일 토요일 내원한 환축의 경우로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를 연속으로 일으키고 몹시 괴로워하여 단골 병원인 세종동물병원에 갔다가 위경련을 일으켜서 즉시 응급처치를 한 후 X레이 촬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김정남 원장과 내원하였다.

개종류는 요크셔 테리어, 수컷, 몸무게 700g이며 체온 38.4°C, 맥박 108회이었다.

우선 급한대로 단순 X선촬영을 하니 복부 좌측 위 부위에 흰점이 하나 있었고 다른 부위는 아무런 변화를 볼 수 없었다. 이 흰점이 혹시 X선현상 중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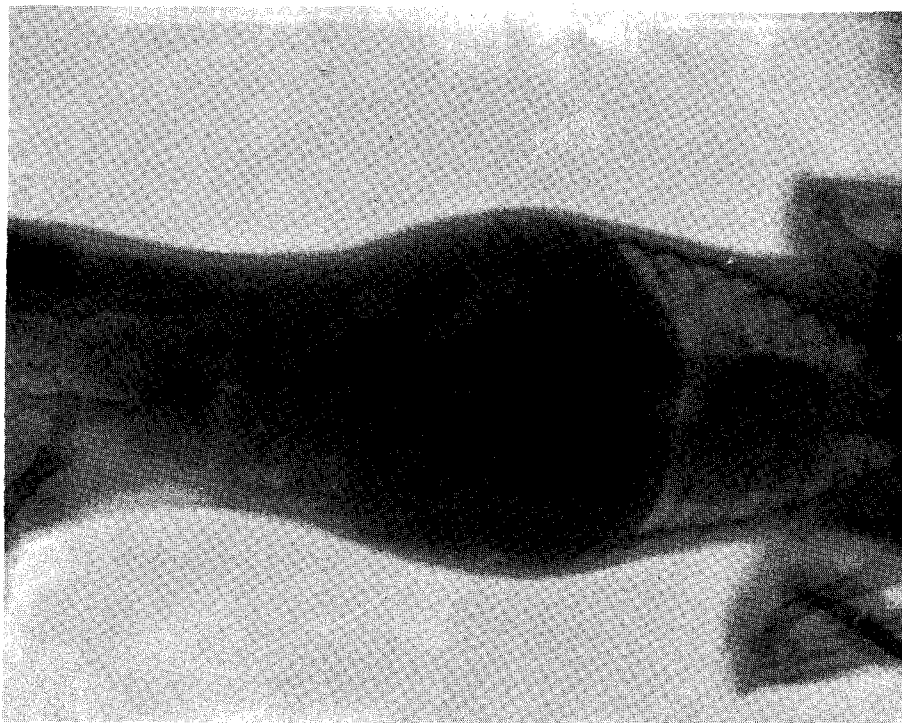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으나 강아지를 X선 촬영시 자세로 하고 찍은 필름과 비교한 결과 강아지의 위 부분이 심하게 격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강아지의 모든 고통이 이곳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문제의 흰 점은 위내에 들어있는 알미늄으로 만들어진 양말클립(길이 1cm, 폭 3~4mm)이었다.

이때도 수술전의 서약서 날인과 수술비 문제로 일단 집에 전화연락을 취했으나 남편이 부재라 할 수 없이 집으로 가게 하였는데 이때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의 마음은 착잡하였다.

필자로서는 강아지 주인의 확실한 의사가 있는지, 적극 사정한다면 수술을 곧 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으나 꼭 살릴 수 있느냐의 물음에 그 당장에 무어라 답할 수가 없었다. 강아지는 가엾으나 곧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꼭 살린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심정은 다른 개업의들도 간혹 경험했을 것이다.

저녁 11시경 온가족의 출동으로 다시 온 강아지는 완전히 숨만 간간히 쉬는 시체였다. 이제는 할 수 없이 하는, 썩 내키지 않는 수술을 하게 되었으나 수술준비를 하니 11시 30분이 되고 수술이 끝났을 때는 이미 12시가 넘어 다음날이 되고 말았다. 항생제는 염산카나마이신 20mg을 근육주사하고 마취는 케타민 0.3cc, 콤펜 0.1cc를 혼합하여 근육주사하였다.

개복후 경련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위를 노출시키니 위의 경련을 잘 볼 수 있는데 체중 700g의 왜소한 개인데도 중계란 크기만한 모양에 용

적은 중계란 2/3정도이며 이곳 저곳에 많은 혈관이 노출되어 있었다. 우선 혈관이 비교적 덜 모인 부위를 골라서 길이 1.5cm의 상처를 내니 당장 위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후 위 몸체를 한 손으로 붙잡고 위 내용물이 메스로 뚫은 구멍으로 보내기를 몇 번하니 위내는 비었고 위의 맹렬한 경련도 멈췄다. 다시 뚫린 구멍안으로 생리식염수를 넣으니 다시 위경련이 일어나서 위내에 procain을 조금 넣었더니 잠시 후 진정되었다. 마취가 너무 잘들어서인지 강아지가 너무 작아 주사봉기가 겁나고 조심스러웠다.

이럴때 흡입마취가나 에텔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당장은 그림의 떡이고... 그후 개복의 반대 순서로 봉합해 나가니 모든 일은 순조롭게 별 출혈도 없이 잘 이루어 졌고 수술이 끝난 후에도 강아지는 깊은 잠에서 헤어 나지 못하였다. 다음날 온 강아지는 머리를 들었고 수술 3일째에 몇 발자욱씩 걸음마를 하게 하였더니 수술 4일째는 제법 걸어도냈다.

병원에 오는 개 중 X선 촬영하는 개들의 골성분이 비교적 나빠 골격의 윤곽이 잘 나타나지 않아 50원짜리 동전을 우측 하단에 놓고 그쪽으로 언제나 강아지의 후구가 오게 하니 X선필름에 50원짜리 동전이 나타남으로 강아지의 골격과 비교가 되고 환측의 자세중 방향을 알 수가 있어 여러가지로 유리하였으므로 여기에 아울러서 보고합니다.

※청운동물병원 안에 소동물 전용 X선이 설치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